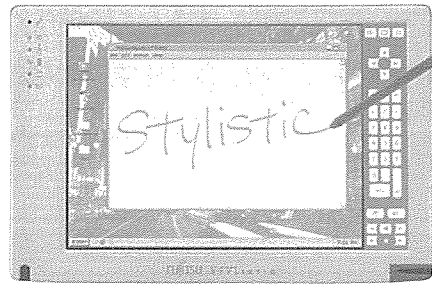


성큼 다가온 펜 태블릿 컴퓨터

전반적인 PC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환경의 변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노트북보다 작고 가벼우면서, 노트북 못지않는 성능을 내는 휴대용 컴퓨터인 태블릿 PC가 그 주역. 펜 태블릿 PC는 키보드를 쓰지 않고, 스타일러스 펜으로 터치스크린에 직접 입력하는 것만 다를 뿐 기존 컴퓨터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지난 9월 10일 후지쓰컴퓨터(www.fujitsu.com)에서 출시된 LT P-600 모델은 지금까지 출시된 펜 태블릿 PC의 최상위 모델로 완벽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한다.

이 제품은 지난해 출시된 LT C-500모델의 후속작으로 셀러론 프로세서 대신 인텔의 스피드스텝 기술을 적용한 저전력 펜티엄3-600MHz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다. 또 15GB의 하드디스크와 256MB의 메모리를 기본 장착해 기존의 노트북에 비해 손색없는 성능을 낸다. 후지쓰 컴퓨터의 마케팅담당 부사장 벨슨은 "이 제품의 출시는 펜 태블릿 PC의 성능과 기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고 자신할 정도이다. 특징적인 것은 더욱 선명해진 LCD화면. 어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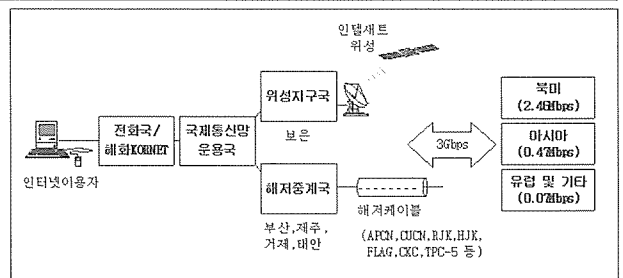


각도에서나 뚜렷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트랜스플렉티브(transflective) LCD화면을 통해 빛의 반사를 줄여 실내에서나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보여준다고 후지쓰 컴퓨터는 밝힌다. 또한 노트북보다 작은 9.6인치×7.1인치 규격의 이 제품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이더넷 포트를 비롯해 56Kbps를 지원하는 모뎀, PCMCIA 카드슬롯, 디지털 카메라 등의 소형기기에 쓰이는 컴팩트 플래시 메모리 슬롯 등 다양한 접속 포트를 내장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무선 키보드, 확장용 미니독을 이용하면 완전한 데스크탑 컴퓨터로 변신한다. 후지쓰컴퓨터는 펜 태블릿 PC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위한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후지쓰컴퓨터는 전세계 펜 태블릿 PC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국제인터넷회선 용량 3기가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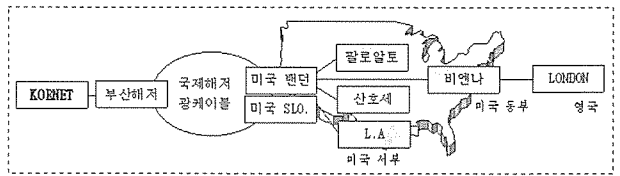
국내에서 해외로 접속하는 인터넷 회선 용량이 3Gbps를 돌파했다. 한국통신(www.kt.co.kr)은 9월 13일 미국, 일본, 유럽 등 14개국에 연결된 국제 인터넷 회선 용량이 국내 최초로 3Gbps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이 처음 국제 인터넷 회선을 구축한 것은 지난 97년으로 미국에 연결한 45Mbps 용량에 불과했다. 3년에 걸친 국제 인터넷 회선 증설 결과 지난 2000년에 1Gbps에 도달했고, 최근 ADSL 등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해외망 접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다시 1년여만에 3Gbps까지 확충되었다. 3Gbps는 A4용지 37만 5천장, 신문용지 4만 7천장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다.

현재 국내에서 해외로 접속하는 인터넷 트래픽의 분포는



미국이 8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일본 10%, 대만과 중국이 각각 2%의 순이다. 그러나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와 중국 IT산업의 성장 등 아시아권 인터넷 트래픽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일본과 중국 등지를 잇는 해저광케이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트래픽은 과거의 단순한 텍스트 전송에서 벗어나 인터넷 게임, 동영상 등의 쌍방향 이미지 전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세에 따라 광대역 회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한국통신이 참여해 건설하고 있는 국제해저케이블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중국, 홍콩 등 아시아지역 10개국을 연결하는 APCN-2(Asia-Pacific Cable Network 2), 내년 3월 개통예정인 한-일간 KJCN(Korea-Japan Cable Network),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JUCN(Japan-US Cable Network), 아시아, 미국 등 11개 사업자가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AAN(Asia-America Network)으로, 이 케이블들이 개통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인터넷 트래픽 수요충족은 물론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에



게 보다 빠른 인터넷 접속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연말까지 국제 인터넷 회선을 증설해 4.7Gbps까지 확장하고, 미국과 유럽에 설치된 해외 인터넷 노드도 뉴욕을 추가해 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호를 위한 쇼핑 솔루션, 골라서 선택

상품만 갖고 있으면 다른 인프라는 전혀 없어도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소호용 쇼핑 솔루션이 인기다. 일종의 온라인 상점 임대 서비스인 이 서비스는 상점구축 솔루션을 비롯해 쇼핑몰 관리 및 온라인 결제, 배송, 매매보호 시스템까지 온라인 상점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일괄 제공한다.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은 지난 5월 문을 연 야후코리아의 소호쇼핑(shopping.soho.yahoo.co.kr). 8월에 개점한 라이코스크리아의 소호몰(soho.lycos.co.kr)도 서비스 개시 1개월만에 3백여개의 상점이 입점하는 인기를 얻고 있다.

입점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루기 쉽고 네티즌 주 연령층의 성향에도 잘 맞는 꽃배달, 핸드폰, 컴퓨터 관련 제품, 화장품 등이 주류. 또한 시중에서 전시판매할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독특한 상품도 많이 등록되어 있다.

중소규모 제품만 취급하는 업체나 쇼핑몰 운영에 드는 유지비용과 관리인원의 문제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을 미뤄온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이 서비스를 눈여겨 볼 만하다. 쇼핑몰의 다양한 디자인이 미리 등록되어 있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쇼핑몰을 개점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과 매매보호제도 등을 동시에 활용해 소비자들이 소규모 쇼핑몰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더욱이 야후나 라이코스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의 수많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거양득이다.



입점에 드는 비용은 독자적으로 쇼핑몰을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초기 가입비를 제외하고는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만 납부하면 된다.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야후코리아의 소호쇼핑은 등록상품의 수량에 따라 월 4만4천원부터 1십1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라이코스 소호몰은 월 2만원부터 40만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라이코스크리아 김명용 EC팀장은 금년내 1천여개의 상점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소호몰 운영자에게는 "대형 포털 소호몰에 입점했다고 해서 매출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 쇼핑몰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본인의 소호몰에만 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독창적이고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⑰

李 懸 (동아사이언스 기자)